

목 차

9월 모의고사 문학 해설 (1)

문학 파트 사용법

이 해설지는 풀이 순서를 최적화한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문학의 내용적인 면이 완성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시간을 최대한 줄여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방법론과 맞지 않을 수도 있으나, 한 번 참조해 보세요.
그리고 중간에 여러분들의 학습을 위해 하나 선물을 넣어두었습니다.

1. 고전소설

- 작자 미상, 「이화전」

2. 현대시 수필 복합

(가) 박목월, 「경사」, (나) 이수익, 「달빛 체질」, (다) 채제공, 「용연사기」

● 고전 소설

상이 전라도 여산 고을로 간 원마다 죽고 고을이 황폐하여 인심이 궤란(潰亂)함을 들으시고 깊이 근심 하사 유예 불평하시더니, 이화란 장사 있어 일찍 무과 급제하여 오래 벼슬을 못하고 분울해하더니, 이 말을 듣고 상소하여 왈,

“신이 이제 급제하여 십여 년에 벼슬을 못 하옵고 성하에 무익하움을 주야에 한이 깊삽더니, 이제 여산의 괴변이 고이하와 **본국**이 위태하오니, 신이 비록 재주 없사오니 한번 입거하와 **사변을 제어**하오리다.”

상이 서사를 보시고 대회하사 즉일 ㉠ **여산 부사**를 제수하시자,

이화 대회하여 사은하고 집에 돌아오자, 가족이 대경하고 부모 왈,

“여산 가는 원마다 죽는 자 삼십여 인이라. 네 구태여 자원하여 죽으려 함은 어찌이뇨. 달리 말고 가지 말라.”

생이 대 왈,

“소자 듣자오니 사악한 기운이 바른 기운을 범하지 못한다 하오니 과려치 마소서.”

인하여 즉시 하직코 발행 나흘에 여산에 이르러 도임하니라.

[중략 부분 줄거리] 이화는 아전 집의 자물쇠에 걸든 혼령인 여백에게 원을 죽인 정체가 누군지 물으나, 여백은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한다.

이화 매우 노하여 여백을 칼로 당당히 베고자 하니, 여백이 애걸하여 왈,

“네 나를 **베고자** 하니, 무릇 두 번 죽는 일이 없으나 불행히 너를 만나 괴로움을 당하는지라. 내 말 하나 네가 처치를 잘못하면 나는 예 있지 아니하고 너는 목이 베어지리라.”

이화 은근히 문 왈,

“**좋은 죄**를 가르치면 어찌 성치 못하리오.”

여백 왈,

“저 은행나무 천여 년이나 묵은 여우 한 쌍이

있어 변화 무궁하니, 이 고을 원마다 죽여 그 피 빨아 먹으니 요술이 점점 더 신기한지라. 잡기를 착실히 할지니, 이 고을 백성에게 명하여 만군으로 겹겹이 진 쳐 사람마다 다 활과 총과 창검을 장전 하라 하고, 대톱과 큰 도끼로 나무를 베면 처음에 피가 낭자할 것이니, 이는 **잡귀**라. 나무 끝에 백발 노옹과 노파 나을 것이니 역만 병으로 **여우를** 잡되 일시에 둘을 다 잡아내면 변이 없으리라.”

이화 이 말을 듣고 기뻐서 왈,

“내가 착실히 할 것이니 염려 말라.”

하고 ㉡ **각 면에** 하령하니, 그물을 맺어 둘러치고 역만 사람으로 겹겹이 둘러 진 치고 나무를 베어라 하니, 모든 관리와 백성이 일시에 말려 왈,

“이 나무가 극히 영험하와 나무 위에 백발 노옹과 노파 때때로 나오니 이는 신선이라. 신기한 변화 무궁하니 이 나무 베시면 백성이 다 죽기 쉽사오니 성주께도 화 있사온가 하나이다.”

원이 대소 왈,

“너희 무삼 지각이 있노라 감히 내 명을 거스르느뇨. 개의치 않으니 나무 속 요괴를 잡지 못하면 반드시 너희들 이 창검으로 처벌하리라. 빨리 나무를 베어 착실히 다 잡으라.”

하고 호령하니, 꾸짖는 소리에 산이 무너지고 고을이 터질 듯하니, 모든 군사 문득 두렵고 겁이 나서 일시에 달려들어 베니 과연 나무 속에 유혈이 낭자하니, 다 실색 창황치 않을 수 없어 일시에 빌어 왈,

“이 나무 변이 이와 같사오니 덕분에 베지 마사이다.”

원이 문득 고성으로 크게 꾸짖어 왈,

“너희 관원의 지휘를 받아 목숨이 비록 다해도 마치지 아니려든, 나무 재변이 이와 같으매 베는 바라. 너희 방자히 굴어 대사를 이렇듯이 그릇되게 하니 반드시 살리지 못하리라.”

하고 호령이 추상 같으니, 제군이 마지못하여 일시에 베니라.

연하여 나무 위에 백발 노옹과 노파가 있어 ‘살리라’ 벽력같이 소리 지르니, 문득 천지가 무너지는 듯 일광이 어둡해지고 음풍이 크게 일어나 진동하니, 성안의 제군이 다 거꾸러지고, 이화 겨우 정신을 차려 고성 왈,

“모든 군사는 창검을 발하여 저 요괴를 잡으라.”

연이어 재촉하니 모든 군사와 백성이 겨우 정신을 차려 일시에 고향하고 나무를 베니, 요괴 둘이 땅에 떨어지매 길이 한 발이 되고 금빛 같은 여우라. 화살과 창검으로 ㉠ 그 짐승을 죽임에 이르니 그제야 정신을 차려 원에게 사례 왈,

[B] “이런 요괴가 읍중에 있어 종전 커다란 변란이 있사옵더니, 성주의 명공 신기 이와 같사오니 이제는 태평을 누릴 줄 어찌 알았으리오. 천신이 강림하여 여러 원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

하더니, 문득 보고하여 왈,

“죽은 여우 수여우뿐이라.”

이화 대경실색하고 돌아오더라.

- 작자 미상, 「이화전」 -

19.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화는 벼슬을 못 했던 울분을 ㉠을 통해 해소하고,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을 통해 시도한다.
- ② 상은 황폐한 인심을 수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을 행하고, 이화는 자신에 대한 백성의 신임을 되찾고자 ㉢을 행한다.
- ③ 이화의 부모에게 ㉠은 이화의 안위를 염려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이화에게 ㉢은 상의 권위를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 ④ 군사들은 ㉢을 계기로 이화를 외면하게 되고, 백성은 ㉢을 근거로 하여 이화를 신뢰하게 된다.
- ⑤ 이화는 백성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을 행하고, ㉢을 통해 관리들에 대한 반감을 표출한다.

18. 뒷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화는 사악한 기운이 바른 기운을 해칠 수 없다고 여기고 여산에 부임했다.
- ② 이화는 모든 관리와 백성이 자신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고 나무라며 자신의 뜻을 고수했다.
- ③ 모든 군사는 이화의 호령하는 소리에 두려움을 느끼고 이화가 요구하는 대로 행동했다.
- ④ 모든 군사는 은행나무 속의 유혈을 보고 당황하여 이화에게 명령을 거둘 것을 요청했다.
- ⑤ 이화는 백발 노옹과 노파가 지르는 소리를 듣고 고향을 치며 나무를 베었다.

20.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자신들의 믿음이 사실과 일치함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있고, [B]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이 사실로 증명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② [A]에서는 상황을 가정하여 대상이 자신들과 상대방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B]에서는 상대방으로 인해 변화된 상황이 자신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 ③ [A]에서는 자신들이 목격한 상황을 토대로 대상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 변화를, [B]에서는 자신들과 상대방이 공유한 경험을 토대로 대상에 대한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 ④ [A]와 [B]에서는 모두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대비하여 바람직한 상황을 가져온 상대방의 업적을 예찬하고 있다.
- ⑤ [A]와 [B]에서는 모두 상대방의 지위를 언급하며 상대방이 스스로의 역할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제안하고 있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화전」은 전기 소설과 영웅 소설의 면모를 동시에 보여준다. 주인공이 초현실적 존재와 교섭하는 설정은 전기 소설의 면모를 보여 주며, 주인공이 위기 해결에 나서고 조력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서사는 여타의 영웅 소설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조력자가 직접 나서서 행동할 수 없는 혼령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 조력자가 주인공의 위협과 회유에 의해 조언을 해 준다는 점, 주인공이 조언을 따르기만 할 뿐 조력자로부터 스스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전수받지 못한다는 점 등은 영웅 소설의 일반적인 조력자나 주인공과는 구별되는 특이성을 보여 준다.

- ① ‘본국’의 ‘사변을 제어하’겠다고 말하며 국가의 위기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화의 모습에서, 영웅 소설의 주인공으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군.
- ② 자신을 ‘베고자 하’는 이화에게 ‘좋은 꾀’를 알려주는 여백의 모습에서, 영웅 소설의 일반적 조력자와는 달리 주인공의 위협과 회유에 의해 조언을 제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잡귀’를 잡는 것에 관해 이화가 여백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현실 세계에 속한 주인공이 초현실적 존재와 교섭하는 전기 소설로서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여백에게 ‘여우를 잡’는 방법은 듣게 되나 스스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전수받지 못한 이화의 모습에서, 영웅소설의 일반적 주인공과는 변별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여백의 조언을 따른 결과 ‘수여우’가 죽은 것에서, 영웅 소설의 일반적 조력자와 달리 조력자가 혼령임에도 주인공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군.

고전 소설 해설

[18~21] 문제 조망하기

〈보기〉 독해 (인물 파악, 일반/특수 체크)

19번: 실시간 독해 풀이 (기호 밑줄) + 손가락 걸기

20번: [B] 구간까지 독해 후 풀이

작품 독해 완료

18번: 시험지 배치순 풀이

21번: 시험지 배치순 풀이

〈보 기〉

「이화전」은 전기 소설과 영웅 소설의 면모를 동시에 보여준다. 주인공이 초현실적 존재와 교섭하는 설정은 전기 소설의 면모를 보여 주며, 주인공이 위기 해결에 나서고 조력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서사는 여타의 영웅 소설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조력자가 직접 나서서 행동할 수 없는 혼령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 조력자가 주인공의 위협과 회유에 의해 조언을 해 준다는 점, 주인공이 조언을 따르기만 할 뿐 조력자로부터 스스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전수받지 못한다는 점 등은 영웅 소설의 일반적인 조력자나 주인공과는 구별되는 특이성을 보여 준다.

인물: 주인공, 조력자

일반: 조력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함

특수: 조력자가 직접 나서서 행동 X, 주인공의 위협과 회유로 인한 도움, 능력 전수 X

19. 기호 밑줄 유형 실시간 풀이

① 이화는 벼슬을 못 했던 울분을 ㉠을 통해 해소하고,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을 통해 시도한다.

→ ㉠과 ㉡ 비교

→ 장면1

상이 전라도 여산 고을로 간 원마다 죽고 고을이 황폐하여 인심이 궤란(榬亂)함을 들으시고 깊이 근심하사 유예 불평하시더니, 이화(인물 제시)란 장사 있어 일찍 무과 급제하여 오래 벼슬을 못하고 분을 해하더니, 이 말을 듣고 상소하여 왈,

(오래 벼슬을 못했으니 이화의 울분은 자명합니다.)

“신이 이제 급제하여 십여 년에 벼슬을 못 하옵고 성하에 무익하옵을 주야에 한이 깊삽더니, 이제 여산의 괴변이 고이하와 본국이 위태하오니, 신이 비록 재주 없사오나 한번 입거하와 사변을 제어하오리다.”(이화의 발화를 보니 10년동안 벼슬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울분이 쌓일만 합니다. 또한 해당 고을에서 발생한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이 서사를 보시고 대회하사 즉일 ㉠ 여산 부사를 제수하시자, (벼슬을 못 했던 울분을 ㉠을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화 대회(당연히 오랜 기간동안 벼슬을 못했으니 기쁠 수 밖에요.)하여 사은하고 집에 돌아오자, 가족이 대경하고 부모 왈,

“여산 가는 원마다 죽는 자 삼십여 인이라. 네 구태여 자원하여 죽으려 함은 어찌이뇨. 달리 말고 가지 말라.”(가족은 가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생이 대 왈,

“소자 듣자오니 사악한 기운이 바른 기운을 범하지 못한다 하오니 과려치 마소서.”(그러나 이화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인하여 즉시 하직코 발행 나흘에 여산에 이르러 도임하니라.

상황: 주인공이 위기 해결에 나섬(보기)

인물과 성격

· 이화(주인공): 10년간 벼슬을 하지 못해 울분이 쌓임, 괴이한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짐

실시간 문제 풀이

→ 19번 풀이 완료 (실시간+손가락 걸기)

→ 장면2

[중략 부분 줄거리] 이화는 아전 집의 자물쇠에 갇힌 혼령인 여백(〈보기〉의 초현실적 존재)에게 원을 죽인 정체가 누군지 물으나, 여백은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한다.(여백이 이화의 부탁을 거절해서 위협과 회유를 통해 조언을 구하게됨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화 매우 노하여 여백을 칼로 당당히 베고자 하니, 여백이 애절하여 왈,

“네 나를 베고자 하니, 무릇 두 번 죽는 일이 없으나 불행히 너를 만나 괴로움을 당하는지라. 내 말 하나 네가 처치를 잘못하면 나는 예 있지 아니하고 너는 목이 베어지리라.”(협박)

이화 은근히 문 왈,

“좋은 피를 가르치면 어찌 성치 못하리오.”(회유)

여백 왈,

“저 은행나무 천여 년이나 묵은 여우 한 쌍(원을 죽인 정체)이 있어 변화 무궁하니, 이 고을 원마다 죽여 그 피 빨아 먹으니 요술이 점점 더 신기한지라. 잡기를 착실히 할지니, 이 고을 백성에게 명하여 만군으로 겹겹이 진 쳐 사람마다 다 활과 총과 창검을 장전하라 하고, 대톱과 큰 도끼로 나무를 베면 처음에 피가 낭자할 것이니, 이는 잡귀라. 나무 끝에 백발 노옹과 노파 나을 것이니 역만 병으로 여우를 잡되 일시에 둘을 다 잡아내면 변이 없으리라.”(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변이 없으려면 나무를 벤 후 여우 한 쌍 잡기를 완수해야 합니다.)

이화 이 말을 듣고 기뻐서 왈,

“내가 착실히 할 것이니 염려 말라.”

상황: 이화가 혼령 여백에게 원을 죽인 정체를 묻자 여백이 거절 → 이화의 협박(베겠다.)과 회유(피를 가르쳐주면 성히 지나갈 수 있다.)

인물과 갈등: 이화(해결책 요구) vs 여백 (거절)

〈보기〉의 특수성이 드러나는 부분

조력자가 혼령이라 직접 행동 못함 + 위협당해서 조언해줌 + 방법만 알려주고 능력은 안 줌
= 전형적인 영웅소설과 다른 독특한 구조를 보여줌.

→ 장면3

하고 ㉠ 각 면에 하령(원님들이 줄줄이 죽어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명령입니다. → 19번 답 ① 확정!)하니, 그물을 뗏어 둘러치고 역만 사람으로 겹겹이 둘러 진 치고 나무를 베어라 하니, 모든 관리와 백성이 일시에 말려 왈,

“이 나무가 극히 영험하와 나무 위에 백발 노옹과 노파 때때로 나오니 이는 신선이라.(여우 두 마리)를 신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신기한 변화 무궁하니 이 나무 베시면 백성이 다 죽기 쉽사오니 성주께도 화 있사온가 하나이다.”(이화의 명을 간접적으로 거부합니다.)

원(관직명을 확인합니다. 원은 이화입니다.)이 대소왈,

“너희 무삼 지각이 있노라 감히 내 명을 거스르느뇨. 개의치 않으니 나무 속 요괴를 잡지 못하면 반드시 너희들 이 창검으로 처벌하리라. 빨리 나무를 베어 착실히 다 잡으라.”

하고 호령하니, 꾸짖는 소리에 산이 무너지고 고을이 터질 듯하니, 모든 군사 문득 두렵고 겁이 나서 일시에 달려들어 베니 과연 나무 속에 유혈이 낭자하니, 다 실색 창황치 않을 수 없어 일시에 빌어 왈,

“이 나무 변이 이와 같사오니 덕분에 베지 마사이다.”(나무가 피를 흘리자 겁을 먹고 이화의 명을 거스르려 합니다.)

원이 문득 고성으로 크게 꾸짖어 왈,

“너희 관원의 지휘를 받아 목숨이 비록 다해도 마치지 아니려든, 나무 재변이 이와 같으매 베는 바라. 너희 방자히 굴어 대사를 이렇듯이 그릇되게 하니 반드시 살리지 못하리라.”

하고 호령이 추상 같으니, 제군이 마지못하여 일시에 베니라.(첫 번째 조건 달성)

연하여 나무 위에 백발 노옹과 노파가 있어 ‘살리라’ 벽력같이 소리 지르니, 문득 천지가 무너지는 듯 일광이 어둡해지고 음풍이 크게 일어나 진동하니, 성안의 제군이 다 거꾸러지고, 이화 겨우 정신을 차려 고성 왈,

“모든 군사는 창검을 발하여 저 요괴(노옹과 노파)를 잡으라.”

연이어 재촉하니 모든 군사와 백성이 겨우 정신을 차려 일시에 고함하고 나무를 베니, 요괴 둘이 땅에 떨어지매 길이 한 발이 되고 금빛 같은 여우라.

화살과 창검으로 ㉠ 그 짐승을 죽임에 이르니 그제야 정신을 차려 원에게 사례 왈,

[B] “이런 요괴가 읍중에 있어 종전 커다란 변란이 있사옵더니, 성주의 명공 신기 이와 같사오니 이제는 태평을 누릴 줄 어찌 알았으리오. 천신이 강림하여 여러 원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

(이화의 명에 대한 칭송)

하더니, 문득 보고하여 왈,

“죽은 여우 수여우뿐이라.”(두 번째 조건 미달성)

이화 대경실색하고 돌아오더라.(둘 다 잡아야 이 번고가 해결되는데 하나만 잡았으니 몹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 작자 미상, 「이화전」 -

인물과 성격

이화: 강압적이고 실행력 있지만, 조력자의 조언에만 의존하는 한계

백성들: 미신적이고 보수적, 권위에는 복종

상황: 여백의 조언 실행 → 부분적 성공 → 새로운 위기 예감

갈등: 이화 vs 백성들 → 이화 vs 초현실적 존재

〈보기〉 연결

‘주인공이 조언을 따르기만 할 뿐’ ‘능력까지는 전수받지 못한다’는 특이성이 드러남

20. [A], [B] 비교

■ 정답해설

- ② [A]에서는 관리와 백성들이 ‘노옹과 노파’를 신선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적인 그들에게 피해를 주면 자신들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추측을 합니다. 반면 [B]에서는 노옹과 노파를 신선으로 칭하지 않고 ‘이런 요괴’라고 칭하며, 이화의 명령으로 위기를 해결한 것에 대해 칭송합니다.

[A]

“이 나무가 극히 영험하와 나무 위에 백발 노옹과 노파 때때로 나오니 이는 신선이라.(여우 두 마리를 신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신기한 변화 무궁하니 이 나무 베시면 백성이 다 죽기 쉽사오니 성주께도 화 있사온가 하나이다.”(이화의 명을 간접적으로 거부합니다.)

[B]

“이런 요괴가 읍중에 있어 종전 커다란 변란이 있사옵더니, 성주의 명공 신기 이와 같사오니 이제는 태평을 누릴 줄 어찌 알았으리오. 천신이 강림하여 여러 원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이화의 명에 대한 칭송)

● 지문독해 FRAME

구간 [A]와 [B] 비교

두 구간에서 논하는 바를 잡고 가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이화의 명에 대한 반응이 드러나 있고

[A]에서는 이화의 명이 가져온 부정적인 결과를,

[B]에서는 이화의 명이 가져온 긍정적인 결과를

드러내며 칭송합니다.

18. 누가/누구에게/무엇을

■ 정답해설

- ⑤ 이화의 명으로 나무가 베어지자 ‘노옹과 노파’가 소리를 지른다.

장면3

호령이 추상 같으니, 제군이 마지못하여 일시에 베 나라.(첫 번째 조건 달성)
연하여 나무 위에 백발 노옹과 노파가 있어 ‘살리 라’ 벽력같이 소리 지르니

● 지문독해 FRAME

세부정보의 파악

중심인물은 머릿속에 새겨가고 주변 인물은 잔상정도만 남겨간 후 돌아가서 확인합니다.

● 선지선택 FRAME

선후 방향성 파악

바꿔치기를 주의합니다!

■ 오답해설

- ① 이화가 가족에게 “소자 듣자오니 사악한 기운이 바른 기운을 범하지 못한다 하오니 과려치 마소서.” 라고 말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훈

이화가 가족을 보고 ‘소자’라고 했으니 가족은 부모님이었을 겁니다. 호칭어를 통해 인물 간 관계를 찾는 연습을 항상 합니다.

- ② 장면3에서 ‘모든 관리와 백성이 일시에 말’렸으나 이화는 자신의 뜻(나무베기)를 고수했습니다.
- ③ 장면3에서 ‘호령하니, 꾸짖는 소리에 산이 무너지고 고을이 터질 듯하니, 모든 군사 문득 두렵고 겁이 나서 일시에 달려들어 베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④ ‘일시에 달려들어 베니 과연 나무 속에 유혈이 낭자하니, 다 실색 창황치 않을 수 없어 일시에 빌어왈, “이 나무 변이 이와 같사오니 덕분에 베지 마사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 미리 <보기>를 지문과 연결하고 풀시다.

■ 정답해설

- ⑤ 여우 한 쌍을 잡아야 하나, 수여우밖에 잡지 못했기에 ‘여백’이 말한 ‘변’이 없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면3

문득 보고하여 왈,
“죽은 여우 수여우뿐이라.”(두 번째 조건 미달성)
이화 대경실색하고 돌아오더라.(둘 다 잡아야 이변고가 해결되는데 하나만 잡았으니 몹시 놀랄 수 밖에 없습니다...)

● 지문독해 FRAME

<보기>+지문

지문 독해 시, <보기>를 연결해서 읽으며 ‘이해와 감상’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이 문제에 도달합니다.

● 선지선택 FRAME

복귀의 최소화

<보기>와 작품을 연결지어 읽고, 선지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바로 판단합니다.

단, 세부정보는 꼭 돌아가서 파악해야 합니다.

‘죽은 여우 수여우뿐’을 보고 바로 올라가서 ‘여우 한 쌍’이라는 조건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 현대시 수필 복합

(가)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굴나무에는 굴이 열리는
이 지순한 길은 바다로 기울었다.

길에는 자갈이 빛났다. 건조한 가을길에 가쁜한 나
의 신발(겨우 무거운 젊음의 젖은 구두를 벗은……)
길은 바다로 기울고 발바닥에 느껴지는 이 신비스러
운 경사감.

겨우 시야가 열리는 남색, 심오한, 잔잔한 세계.
하늘과 맞닿을 즈음에 이 신비스러운 수평의 거리감.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굴나무에는 굴이 열리는
이 당연한 길은 바다로 기울고, 가쁜한 나의 신발.

나의 뒤통수에는 해가 저물고, 설레는 구름과 바
람. 저녁 햇살 속에 자갈이 빛나는 길은 바다로 기울
고, 나의 발바닥에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 오오 기우
는 세계여.

- 박목월, 「경사」 -

(나)

내 조상은 뜨겁고 부신
태양 체질이 아니었다. 내 조상은
뒤안처럼 아늑하고
조용한
달의 숭배자였다.

그는 달빛 그림자를 밟고 뛰어놀았으며
밝은 달빛 머리에 받아 글을 읽고
자라서는, 먼 장터에서
달빛과 더불어 집으로 돌아왔다.

낮은
이 포근한 그리움
이 크나큰 기쁨과 만나는
힘겨운 과정일 뿐이었다.

일생이 달의 자장(磁場) 속에
간히기를 원했던 내 조상의 달빛 체질은
지금
내 몸 안에 피가 되어 돌고 있다.

밤하늘 떠오르는 달만 보면
웬지 가슴이 멎혀져서
끝없이 야행(夜行)의 길을 더듬고 싶은 나는

아, 그것은 모체의 태반처럼 멀리서도
나를 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마치
보이지 않는 인력(引力)이 바닷물을 끌듯이.

- 이수익, 「달빛 체질」 -

(다)

천지 만물에는 큼이 있고 작음이 있다. 큼과 작음
은 사물의 형태이다. ㉠ 형태가 처음 생겨나면 그 종
류가 이미 구별되니, 누가 바꿀 수 있겠는가. 하지만
작으면서도 크고 크면서도 작은 이치가 또한 없지 아
니하다. 무엇보다 작은 것이 대나무 도시락의 밥과
한 그릇의 국인데, 그것에서 표정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사물은 작는데 사람이 그것을 보고 크
게 여기는 것이다. 무엇보다 큰 것이 진나라와 초나
라의 부유함인데, 성인(聖人)은 ㉡ “내가 무슨 부족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사물은 큰데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작게 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물에는 **큼과 작음**이 일찍이 없었던 것이고,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대처함이 어떠한지에 달린 것일 뿐이다.

우 상사 사양(禹上舍士仰)은 약봉의 아래에 자리를
잡고 산다. 집터가 몇 이랑도 되지 않고 띠로 지붕을
이었으니, 집 가운데서도 지극히 작은 경우이다. 그
래도 사양은 그 집을 **편히 여기며, 자고 거처하는 집**
을 ‘용연사(容燕舍)’라고 명명하였다. 그 집이 제비
둥지를 겨우 수용할 수 있는 정도라는 의미이다. 사
양이 언젠가 ㉢ 나에게 집의 규모를 말한 적이 있었
는데, 표정에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듯한 기색이 있
었다. 그래서 나는 웃으며 말해 주었다.

“군(君)의 집은 정말 작네. 하지만 작다고 여기면 작은 것이고 크다고 여기면 큰 것이니, 군이 어떻게 여기느냐에 달렸을 뿐일세. 저 집이 이미 군을 수용하고, 그 남은 공간에 다시 군의 처와 자식을 수용하며, 뜰에는 국화를 많이 심어 매년 가을이면 **향기와 빛깔이 서로 한데 모이고**, 처마 밖에는 중남산 일대가 아침저녁으로 **푸르른 산 빛을 보내오**네. 집이 이 모든 것을 **사양하지 않고** 다 수용하니, 군의 집은 수용하는 것이 많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외면의 것이지 내면이 아니라네. ㉠ 군은 독서하는 사람이니 가까운 내면의 것을 시험 삼아 생각해 보게. 군에게 몸을 주재하는 것은 마음이 아닌가. 마음의 자리는 사방 한 치일 뿐이니, 비록 지극히 작은 사물이라고 말해도 될 것이네. 하지만 한량이 없고 방향이 없는 마음으로서 의로운 행동을 쌓아 생기는 것을 병졸로 삼아 제대로 기르면 천지 사이에 가득하게 된다네. 그래서 소자(邵子)는 ‘베 이불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명아주 국으로 배를 불리고 나서 흥중의 기를 토해 내니 우주에 가득하도다.’라고 하였지. 안락한 오두막 하나가 천지 사이의 커다란 구역이 된다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 지금 군은 집으로 군의 몸을 수용하고, 몸으로 군의 마음을 수용하고, 마음으로 과연 능히 천지 사이에 가득한 것을 수용하였으니, 수용한 것의 근본을 바탕으로 정진한다면 집이 그것을 주인으로 삼지 않음이 없을 것이네.”

- 채제공, 「용연사기」 -

2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일부 시행을 명사로 종결하여, 바라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② (나)는 의인화된 대상을 활용하여, 대상이 가지는 의미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다)는 서로 다른 관점을 대비하여, 글쓴이가 주목한 세태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나)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는 모두 감탄사를 활용하여, 대상에서 촉발된 정서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23.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2연과 4연을 통해, 1연에서 화자가 자신의 조상을 ‘달의 승배자’라고 생각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군.
- ② 4연을 통해, 화자의 ‘몸 안’에 ‘돌고 있’는 ‘피’의 속성은 ‘일생’동안 ‘내 조상’이 ‘원했던’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6연을 통해, ‘그것’이 ‘멀리’ 있음으로 인해 화자가 느끼는 아쉬움이 ‘모체의 태반’을 떠올리는 행위로 해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2연과 3연을 통해 알 수 있는, 함께하는 대상에 대한 ‘그’의 정서를 바탕으로, 6연에서 ‘나를 끌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것’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짐작할 수 있군.
- ⑤ 6연의 ‘바닷물’과 관련된 자연 현상을 통해, 4연의 ‘달의 자장’과 화자가 맺고 있는 관계의 특징을 알 수 있군.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는 보조 관념을 통해 원관념을 드러내는데, 이때 추상적인 개념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될 수 있다. 시에서 형상화는 개념과 이미지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러한 유사성은 밝은 속성을 가진 대상은 긍정적으로, 어두운 속성을 가진 대상은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처럼 보편적 인식에 바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개념과 이미지 간의 유사성이 화자 개인의 경험이나 인식에 기반해 개성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 ① (가)에서는 ‘젊음’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젖은 구두’를, 무거움이라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관 지어, 과거를 힘들었다고 여기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 ② (가)에서는 ‘시아가 열리는’ ‘바다’에 대한 인식과 ‘잔잔한’ 모습을, 고요하고 평화롭다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관 지어, 화자의 평온한 내면 상태를 드러내고 있군.
- ③ (나)에서 ‘태양 체질’을 ‘뜨겁’다는 것과, ‘달빛 체질’을 ‘뒤안’처럼 ‘아늑하’고 ‘조용한’ 것과 연관 지어 표현한 것은, 추상적 개념을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④ (가)에서 ‘해가 저물’ 때의 심리를 ‘설레는 구름’과, (나)에서 밤에 느끼는 심리를 ‘크나큰 기쁨과 만나는’ 상황과 연관 지어 표현한 것은, 모두 화자의 개성적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겠군.
- ⑤ (가)에서 ‘길’에 놓인 ‘자갈’을 ‘빛나는’ 것으로, (나)에서 ‘달빛’을 ‘밝은’ 것으로 표현한 것은, 각각 눈이 부신 속성을 가졌다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관 지어, 희망을 추구하는 화자의 내적 지향을 드러낸 것이겠군.

25.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사물의 외적 형태에 대한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진술이다.
- ② ㉡ : 인용의 방식을 활용하여, 사물의 크기에 대한 ‘나’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다.
- ③ ㉢ : 경험을 상기하는 표현을 통해, 자기 집의 크기에 대한 ‘사양’의 인식이 변화하였음을 보여 주는 진술이다.
- ④ ㉣ : 명령하는 표현을 통해, ‘나’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사양’에게 권유하는 진술이다.
- ⑤ ㉤ : 연쇄적 표현을 바탕으로, ‘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를 ‘사양’에게 적용하여 설명하는 진술이다.

26. 다음에 따라 (가)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 문학 작품을 통해 우리는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화자나 글쓴이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가)에서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화자의 인식이, (다)에서는 사물의 형태와 주관적 판단의 관련성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이 나타나 있지요.

- ① (가)에서 화자는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는 자연의 섭리에 주목해 나이 들이 당연함을, (다)에서 글쓴이는 ‘사양하지 않’는 ‘집’에 주목해 이권을 포용하는 삶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군.
- ② (가)에서 화자는 ‘신비스러운 경사감’에 주목해 황혼기에 대한 기대감을, (다)에서 글쓴이는 ‘향기와 빛깔이 서로 한데 모이’는 ‘뜰’에 주목해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군.
- ③ (가)에서 화자는 ‘하늘과 맞닿’아 있는 대상을 통해, (다)에서 글쓴이는 ‘푸르른 산 빛을 보내오’는 현상을 통해 자연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④ (가)에서 화자는 ‘저녁 햇살’이 비추는 대상을 통해 황혼기의 아름다움을, (다)에서 글쓴이는 ‘큼과 작음’을 통해 대상의 가치는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⑤ (가)에서 화자는 ‘기우는 세계’에 주목해 황혼기의 불안전함을, (다)에서 글쓴이는 ‘편히 여기며, 자고 거처하는 집’에 주목해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는 삶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군.



[22~26] 문제 조망하기

23번: 실시간 풀이 (선지 → (나) 지문)

(나) 독해 완료

26번 <보기> 독해 후 (가) 독해 완료

24번: 독해 후 풀이 (구절의 평가 묻는 <보기>)

25번: 실시간 풀이 (기호 밑줄) → (다) 독해 완료

26번: 독해 후 풀이 (구절의 평가 묻는 <보기>)

22번: 독해 후 풀이 (표현법)

23. 선지를 통한 독해 (대상에 집중!)

- ① 2연과 4연을 통해, 1연에서 화자가 자신의 조상을 '달의 숭배자'라고 생각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군.

→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독해를 해봅시다. 4연까지 빠르게 정보들을 추출하고 선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런 유형에는 연별로 숫자 써두고 빠르게 무빙하세요.

(나)

1연

내 조상은 뜨겁고 부신
태양 체질이 아니었다. 내 조상은
뒤안처럼 아늑하고
조용한
달의 숭배자였다.

화자: '내'(표면적 화자)

대상: 조상(태양 X, 달 O), 태양(뜨거움, 눈부심),
달(아늑함, 조용함)

화자의 조상이 달을 지향했으니 화자도 달을

지향할까요? 일단 더 읽어봅시다.

2연

그는 달빛 그림자를 밟고 뛰어놀았으며
밝은 달빛 머리에 받아 글을 읽고
자라서는, 먼 장터에서
달빛과 더불어 집으로 돌아왔다.

대상: 그(조상)

상황: '그'(조상)의 삶 묘사

화자의 조상은 달빛과 함께 살았습니다.

3연

낮은
이 포근한 그리움
이 크나큰 기쁨과 만나는
힘겨운 과정일 뿐이었다.

사전 지식: 시간이 흐르면 낮에서 밤이 됨, 달은 밤에 뜬
이해: '그'에게는 낮이 달이 뜨는 밤을 기다리는 힘든
과정임

대상: 낮(-)

교훈

현대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조합해서 작품의 맥락에 맞게 해석해야 합니다. 약간의 공부만 하면 숨쉬듯 당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와 감상'은 가능하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는다면 문제 선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아 갈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으세요.

4연

일생이 달의 자장(磁場) 속에
간하기를 원했던 내 조상의 달빛 체질은
지금
내 몸 안에 피가 되어 돌고 있다.

조상의 달빛에 대한 지향이 화자에게도 이어졌습니다.

결론이 났네요. 화자도 달을 긍정적으로, 태양을 부정적으로 여기겠습니다.

① 2연과 4연을 통해, 1연에서 화자가 자신의 조상을 ‘달의 숭배자’라고 생각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군.

→ 조상인 ‘그’가 태양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달을 긍정적으로 여겼으니 적절합니다.

② 4연을 통해, 화자의 ‘몸 안’에 ‘돌고 있’는 ‘피’의 속성은 ‘일생’동안 ‘내 조상’이 ‘원했던’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군.

→ 달을 추구하던 조상의 피가 화자에게 이어졌으니 적절합니다.

③ 6연을 통해, ‘그것’이 ‘멀리’ 있음으로 인해 화자가 느끼는 아쉬움이 ‘모체의 태반’을 떠올리는 행위로 해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판단하러 6연까지 가봅시다!

5연

밤하늘 떠오르는 달만 보면
웬지 가슴이 멍해져서
끝없이 야행(夜行)의 길을 더듬고 싶은 나는

달이 좋으니 밤길을 걷고 싶겠조.

6연

아, 그것은 모체의 태반처럼 멀리서도
나를 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마치
보이지 않는 인력(引力)이 바닷물을 끌듯이.
- 이수익, 「달빛 체질」 -

얼마나 달이 좋으면 영탄법까지 써가며 자신의 감정을
짚고 깊게 강조할까요?

달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화자를 계속 끌어줍니다.
물리적 거리는 멀지만, 정서적 거리는 오히려
가깝습니다.

③ 6연을 통해, ‘그것’이 ‘멀리’ 있음으로 인해 화자가

느끼는 아쉬움이 ‘모체의 태반’을 떠올리는 행위로
해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도 나를 끌고 있
다’고 합니다. 정서적인 거리감이 가까운데 아쉬울
리가 없습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교훈(최소한의 감상)

여기서는 보이지 않아도 우릴 응원해 주시는 누군가가
있지 않나요? 그분들께서 응원해 주실 때 멀리 있다고
해서 아쉽나요? 그렇지않을 겁니다.

④ 2연과 3연을 통해 알 수 있는, 함께하는 대상에
대한 ‘그’의 정서를 바탕으로, 6연에서 ‘나를 끌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것’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짐
작할 수 있군.

→ 2연과 3연에서 ‘그’에겐 ‘달’이 긍정적인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상인 ‘그’의 피가 이어진 ‘화자’
는 역시나 ‘그것’(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적절합니다.

⑤ 6연의 ‘바닷물’과 관련된 자연 현상을 통해, 4연의
‘달의 자장’과 화자가 맺고 있는 관계의 특징을 알
수 있군.

→ 인력이 바닷물을 끌듯이 달이 화자를 끌어주고 있
다는 표현을 보아 적절합니다.

〈보 기〉

선생님 : 문학 작품을 통해 우리는 특정한 상황이 나 대상에 대한 화자나 글쓴이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가)에서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화자의 인식, (다)에서는 사물의 형태와 주관적 판단의 관련성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이 나타나 있지요.

(가) 상황: 인생의 황혼기(화자의 나이 둘을 무엇으로 표현하는지 파악할 것!)

(다) 주제: 사물의 형태와 주관적 판단 (이 두 항의 관계를 파악할 것!)

(가)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굴나무에는 굴이 열리는 이 지순한 길은 바다로 기울었다.

대상: 길(유자나무, 굴나무) → 바다

해상도 다운

길이 바다로 기울었다고 합니다. 바다가 지향점일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빠르게 넘갑시다.

교훈(최소한의 감상)

해상도 업

물론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굴나무에 굴이 열리는 당연한 자연의 섭리가 존재하는 길이 바다에 기울었다 (향하고 있다)고 읽어도 좋습니다. 되면 하세요.

길에는 자갈이 빛났다. 건조한 가을길에 가쁜 나의 신발(겨우 무거운 젊음의 젖은 구두를 벗은……) 길은 바다로 기울고 발바닥에 느껴지는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

대상: 자갈(빛남), 신발(무거움 → 가벼움)

배경: 길(공간), 가을(시간)

상황: 화자는 길에서 젊음의 구두를 벗었습니다.

즉, 이젠 더 이상 젊지 않습니다. 〈보기〉의 ‘인생의

황혼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이해와 감상’을 총동원한다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실제로 제가 읽으며 생각한 바를 써보겠습니다.

교훈(최대의 감상)

해상도 업

길은 아마 화자가 따라 걸어가고 있는 배경이기에 화자의 인생 여정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길이 건조한 가을 길이라고 했는데, ‘가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소멸(·:낙엽)과 결실(·:열매)입니다. 아마 길이 건조하니 전자의 이미지겠죠? 그 과정에서 화자는 길을 따라 젊음이라는 구두를 벗고 가벼워진 발로 바다를 향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아마 노화라는 자연의 섭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여정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숨 쉬듯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 친구들은 문제를 통해 여기에 닿아야 합니다.

겨우 시야가 열리는 남색, 심오한, 잔잔한 세계. 하늘과 맞닿을 즈음에 이 신비스러운 수평의 거리감.

대상: 바다(남색, 심오함, 잔잔함)

상황: 화자는 바다를 봄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굴나무에는 굴이 열리는 이 당연한 길은 바다로 기울고, 가쁜 나의 신발.

1연을 반복, 변주합니다.

나의 뒤통수에는 해가 저물고. 설레는 구름과 바람. 저녁 햇살 속에 자갈이 빛나는 길은 바다로 기울고, 나의 발바닥에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 오오 기우는 세계여.

- 박목월, 「경사」 -

배경: 저녁(시간)

대상: 해(저물 → 황혼 = 〈보기〉), 자갈(빛남)

해가 저물고 자갈이 그 빛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24. <보기> 적용

<보 기>

시는 보조 관념을 통해 원관념을 드러내는데, 이때 추상적인 개념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될 수 있다. 시에서 형상화는 개념과 이미지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러한 유사성은 밝은 속성을 가진 대상은 긍정적으로, 어두운 속성을 가진 대상은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처럼 보편적 인식에 바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개념과 이미지 간의 유사성이 화자 개인의 경험이나 인식에 기반해 개성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보편적 인식: 밝음 = 긍정, 어두움 = 부정

개성적 인식: 개인의 경험, 인식에 기반

<보기> + 범주화

(가) 젊음(부정) ↔ 황혼(긍정)

(나) 태양(뜨거움, 눈부심→부정) ↔ 달(아늑함, 조용함→긍정)

■ 정답해설

- ⑤ ‘뜨겁고 부신 태양’을 통해 태양은 매우 밝고 ‘아늑하다는 것과 조용한 달’을 통해 달은 밝긴 하지만 태양보다는 덜 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달빛’이 눈이 부신 속성을 가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태양’이 눈이 부신 속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 교훈(이해와 감상 VS 인지와 판단)

희망을 추구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드러냈다는 것인데, 이는 주로 현재의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가)와 (나) 둘 다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핍 → 희망 추구’가 성립한다고 해서, 그 역인 ‘희망 추구 → 결핍’이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통해 정오 판정을 내려야 합니다.

● 지문독해 FRAME

화자 → 범주화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지향하는지 파악하고 기준을 잡읍시다.

● 선지선택 FR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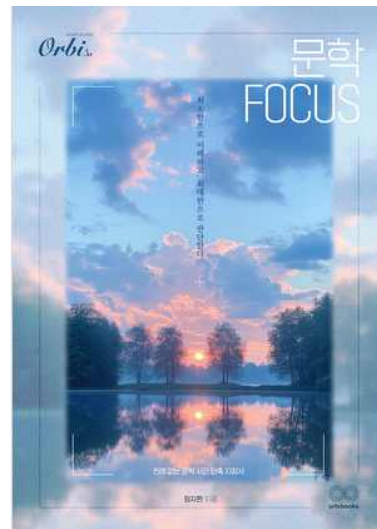
범주화/사실관계 파악

1. <보기> 혹은 작품 감상을 통해 범주를 나눌 기준을 설정합시다. (가)는 나이, (나)는 빛(의 세기)로 나눕니다.
2. 작품에 정말 있는지 돌아가서 확인합시다.

2509 백석, 「북방에서-정현웅에게」에서 슬픔에 대한 판단을 해봤다면 이 지점은 가볍게 털고 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범주화가 여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장에서 ‘문학 FOCUS’ P.389~391을 보면서 가봅시다.



여러분의 학습을 위해 책 내용을 일부 공개합니다.

문학FOCUS

최소 이해, 최대 판단! 전례 없는 문학 시간 단축 지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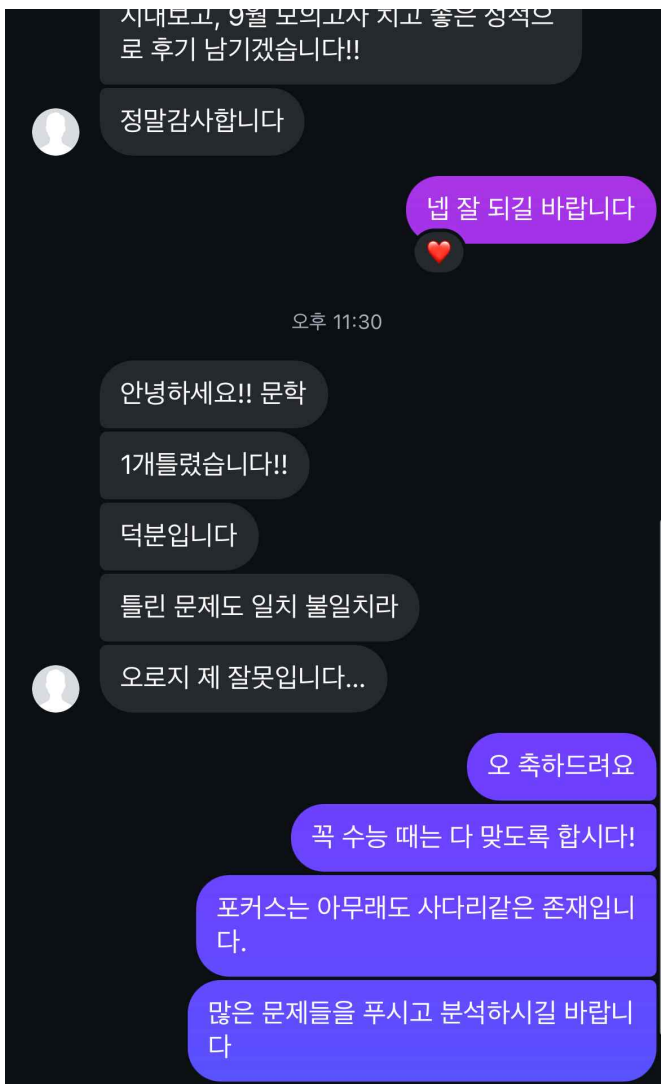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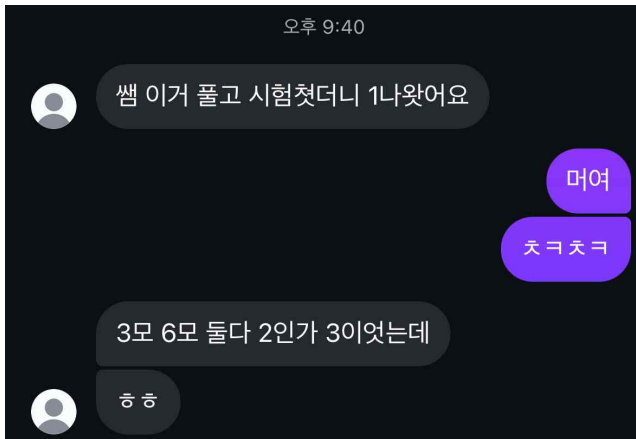
정지환 지음

오르비 며칠 안들어와서 이제 확인했네요!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이제 거의 다 봤고 본격적으로 기출에 적용시키는 연습 하려구요. 보기로 독해 적용시키는것도 하다 보니 좀 익숙해지는 느낌입니다 아직 책 다 끝낸지 며칠 안돼서 막 극적으로 시간이 줄고 이런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보단 나아진 느낌이에요 수능때 문학 30분 내로 들어 오는걸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일 전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12일 전



학습목표

2509 (가) 백석, 「북방에서-정현웅에게」 24번

맥락을 통한 상황 파악하기
10번 문제 풀이 - 기호 밑줄 선지 해설

① ㉠에서는 여러 민족, 나라, 지명을 열거하여, 화자가 떠나온 공간을 북방으로 포괄되는 동질적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다.

㉡ 어라? 열거에서 동질성을 바로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나열/열거면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통해 드러내고 싶은 것을 강조하니까요. 그러면 나열된 곳이 북방이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 부여를 숙신을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

홍안령을 음산을 아무우르를 승가리를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 화자는 떠났습니다. 어딜 떠났을까요? 선지에서 북방이라고 하는데 나열된 공간은 북방이기에 허용 가능합니다. (부여와 발해가 북방인데 모른다면 한국사 열심히 하십시오.) 화자는 과거에 북방에서 동물들을 속이고 떠났습니다.

①번은 적절합니다. 사실 이 선지는 열거에서 동질성을 바로 뽑아낼 수 있는 선지입니다. 문학 개념어를 배웠다면 이 정도는 해야 합니다. “나열/열거는 비슷한 대상들을 늘 어두는 것이니까 공통점을 드러내겠네. 즉, 동질성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법이구나! 선지 자체가 모순이 없으니 바로 열거 여부만 봐야지.”

② ㉢에서는 의인화된 자연물을 제시하여, 화자가 북방을 떠나면서 느낀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 대상과 정서에 집중해서 갑시다.

나는 그때

㉠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의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다
갈대와 장풍의 불드던 말도 잊지 않았다

㉡ 자연물들이 슬퍼하고 불드립니다. 나무는 감정을 가질 수 없기에 의인법이 맞습니다. 여기서 최소한의 이해를 해봅시다. 화자 자신이 슬펐기에 자연물들도 슬퍼 보이는 것입니다. 화자는 자연물에 자신의 슬픔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②번도 적절합니다.

③ ㉤에서는 이별하던 장면을 유사한 통사 구조로 제시하여, 화자가 북방에서의 기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오로촌이 멧돌을 잡아 나를 잔치해 보내던 것도

솔론이 십릿길을 따라 나와 울던 것도 잊지 않았다

㉣ 유사한 통사 구조를 통해 이별의 장면을 드러냅니다. 울며 떠나보낸 것을 잊지 않았으니 당연히 북방에서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겠죠. ③번도 적절합니다.

대구법으로 제시된 대상들은 화자를 붙잡기도 하고 따라나와 울기도 합니다. 화자가 얼마나 떠나기 싫었으면 대상들을 의인화해서 표현했을까요.

정서 슬픔

상황 어떤 공간을 떠나며 미련의 태도와 슬픔의 정서를 드러냄

④ ㉥의 시구가 ㉠에서 반복, 변주되는 것을 통해, 상반된 상황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일치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반복과 변주를 확인하고 ㉢과 ㉤이 상반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나는 그때

㉠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다만 게을리 먼 앞대로 떠나 나왔다

그리하여 따사한 햇기에서 하이얀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 샘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나고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을 하면서도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

- ㉡ ‘그때’라고 말하며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시름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 화자는 과거 북방을 떠날 때의 인화를 통해 슬픔을 드러내지 않았나요? 일단 더 읽어 봅시다. 앞대라는 곳의 삶을 감각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때를 되돌아보니 부끄럽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때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엔 아니었지만요. 과거를 회상하고 성찰하는 것일까요?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에서 ‘아무 이기지 못할’에 주목하면 ‘강한 슬픔도 시름도 없이’로 읽을 수 있습니다. 화자는 과거에 슬픔이 있긴 했으나, 이기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즉, 약한 슬픔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경 앞대(공간)

정서 부끄러움

그동안 돌비는 깨어지고 많은 은금보화는 땅에 묻히고
가마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는데

이리하여 또 한 아득한 새 옛날이 비롯하는 때

㉢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나는 나의 옛 하늘로 땅으로 — 나의 태반으로 돌아
왔으나

- ㉣ 시간이 흐르며 많은 것이 달라졌고 화자는 현재 강한 슬픔과 시름을 느끼며 북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서 슬픔, 시름

배경 북방(공간)

- ㉡과 ㉢의 상황부터 판단합니다. ㉡은 약한 슬픔, ㉢은 강한 슬픔을 드러냅니다.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상반된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추이에 따라 일치되는 과정’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에서 ㉢으로 흘러가며 정서의 정도가 달라졌습니다. ‘일치’가 아닌 ‘변화’입니다. 따라서 ㉣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답 ㉣

이미 해는 높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보래구
름만 혼자 뉘 없이 떠도는데

- ㉤ 대상을 나열해서 많은 것이 바뀌었음을 드러냅니다.

- ㉥ ㉢에서 ‘없다’와 그 앞에 열거된 시어들을 통해, 화자가 가깝게 느끼고 가치를 부여했던 것들이 부재함을 표현하고 있다.

- ㉦ 열거된 대상의 공통점을 확인합니다.

㉢ 아,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
랑은 나의 힘은 없다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
고 없다

- ㉧ 조상도 형제도 친척도 이웃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화자가 가깝게 느끼며 가치를 부여한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번은 적절합니다.



교훈 · 선지 판단

‘시간의 추이에 따라 일치되는 과정’이라면 먼저 서로 다른 두 상황 A와 B가 제시되고, 시간이 흐른 후 이 둘이 어떤 지점 C로 수렴하여 결국 일치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변증법적 과정과 유사합니다. (C가 A로 기울거나 B로 기울 수 있기에 완전히 변증법적이라고 볼 수 없기에 유사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 선지를 다시 읽어 봅시다. ‘㉠의 시구가 ㉡에서 반복, 변주되는 것을 통해, 상반된 상황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일치되는 과정’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과 ㉡ 자체가 상반된 상황이라면서 어떻게 시간이 흐르면서 일치한다는 걸까요?

선지가 말하려는 건 이런 걸 겁니다. ‘처음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황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하나로 수렴했다.’ 예를 들어 A는 슬픔, B는 기쁨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며 둘 다 담담함으로 변했다면 ‘일치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된 상황인 ㉠과 ㉡만 나온 순간 일치되는 과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실관계도 엮어서 다시 봅시다.

작품에서 우리가 본 건 뭐였나요? ㉠에서 ㉡으로 가면서 ‘약한 슬픔’이 ‘강한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일치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정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25. 선지를 통한 독해 (기호 밑줄)

- ① ㉠ :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사물의 외적 형태에 대한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진술이다.

→ 물음을 찾고 그 의도를 파악합니다.

(다)

천지 만물에는 큼이 있고 작음이 있다. 큼과 작음은 사물의 형태이다. ㉠ 형태가 처음 생겨나면 그 종류가 이미 구별되니, 누가 바꿀 수 있겠는가. (통념) 하지만 작으면서도 크고 크면서도 작은 이치가 또한 없지 아니하다.(반박) 무엇보다 작은 것이 대나무 도시락의 밥과 한 그릇의 국인데, 그것에서 표정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사물은 작은 데 사람이 그것을 보고 크게 여기는 것이다.(예시)

물음(통념)을 통해 자신의 주장(반박)을 전개합니다.

①번은 적절합니다.

- ② ㉡ : 인용의 방식을 활용하여, 사물의 크기에 대한 ‘나’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다.

→ 앞서 제시한 반박(처음 형성된 것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 경우)을 뒷받침하는 인용이 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무엇보다 큰 것이 진나라와 초나라의 부유함인데, 성인(聖人)은 ㉡ “내가 무슨 부족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사물은 큰데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작게 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물에는 큼과 작음이 일찍이 없었던 것이고,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대처함이 어떠한지에 달린 것일 뿐이다.

결국 사람의 마음에 따라 사물이 다르게 보인다는 주장을 합니다.

- ③ ㉢ : 경험을 상기하는 표현을 통해, 자기 집의 크기에 대한 ‘사양’의 인식이 변화하였음을 보여 주는 진술이다.

→ 경험을 상기하는 표현을 통해 ‘사양’의 인식 변화를 확인합니다.

우 상사 사양(禹上舍士仰)은 약봉의 아래에 자리를 잡고 산다. 집터가 몇 이랑도 되지 않고 따로 지붕을 이었으니, 집 가운데서도 지극히 작은 경우이다. 그래도 사양은 그 집을 편히 여기며, 자고 거처하는 집을 ‘용연사(容燕舍)’라고 명명하였다. 그 집이 제비 등지를 겨우 수용할 수 있는 정도라는 의미이다. 사양이 언젠가 ㉢ 나에게 집의 규모를 말한 적이 있었는데, 표정에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듯한 기색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웃으며 말해 주었다.

‘사양’의 내력을 제시하고 ‘사양’이 자신에게 말한 바를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의 집이 작다고 여기는데, 앞서 제시된 화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사양’의 사례를 통해 화자가 말하려는 바를 뒷받침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양’의 인식 변화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③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 ③

- ④ ㉣ : 명령하는 표현을 통해, ‘나’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사양’에게 권유하는 진술이다.

→ 명령형 어조를 통해 자신의 생각(반박: 작아도 크다고 생각하면 크다.)를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방법을 권유하는 부분을 찾아봅시다.

“군(君)의 집은 정말 작네. 하지만 작다고 여기면 작은 것이고 크다고 여기면 큰 것이니, 군이 어떻게 여기느냐에 달렸을 뿐일세. 저 집이 이미 군을 수용하고, 그 남은 공간에 다시 군의 처와 자식을 수용하며, 뜰에는 국화를 많이 심어 매년 가을이면 향기와 빛깔이 서로 한데 모이고, 처마 밖에는 종남산 일대가 아침저녁으로 푸르른 산 빛을 보내오네. 집이 이 모든 것을 사양하지 않고 다 수용하니, 군의 집은 수용하는 것이 많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외면의 것이지 내면이 아니라네. (외면보다 내면을 중시하는 화자의 입장을 생각하면, 이 부분은 완급조절을 하길 바랍니다.) ㉣ 군은 독서하는 사람이니 가까운 내면의 것을 시험 삼아 생각해 보게. 군에게 몸을 주재하는 것은 마음이 아닌가.

화자의 주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권유하는 것을

보니 ④번은 적절합니다.

⑤ ㉠ : 연쇄적 표현을 바탕으로, '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를 '사양'에게 적용하여 설명하는 진술이다.

→ 이전의 뒷 말을 받아오는 구조로 강조하는 부분을 찾아봅시다.

마음의 자리는 사방 한 치일 뿐이니, 비록 지극히 작은 사물이라고 말해도 될 것이네. 하지만 한량이 없고 방향이 없는 마음으로서 의로운 행동을 쌓아 생기는 것을 병졸로 삼아 제대로 기르면 천지 사이에 가득하게 된다는데. 그래서 소자(邵子)는 '배 이불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명아주 국으로 배를 불리고 나서 홍종의 기를 토해 내니 우주에 가득하도다.'라고 하였지. 안락한 오두막 하나가 천지 사이의 커다란 구역이 된다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결국 작은 집도 자신이 크게 인식하면 크다고 볼 수 있음을 드러냅니다.) ㉠ 지금 군은 집으로 군의 몸을 수용하고, 몸으로 군의 마음을 수용하고, 마음으로 과연 능히 천지 사이에 가득한 것을 수용하였으니,(연쇄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고 화자가 주장하는 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용한 것의 근본을 바탕으로 정진한다면 집이 그것을 주인으로 삼지 않음이 없을 것이네."

- 채제공, 「용연사기」 -

26. 지문의 핵심 바로 고르기.

■ 정답해설

- ④ (가)의 화자는 저녁 햇살이 비추는 길을 시각적으로 묘사하며 예찬적 태도를 드러냅니다. 또한 (다)는 작은 것도 크게 인식하는 사례를 통해 세상일은 자신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글쓴이의 인식을 드러냅니다.

● 지문독해 FRAME

주제

결국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뽑아서 요약하고 머릿속에 넣어야 합니다.

● 선지선택 FRAME

주제

작품을 독해한 후 복귀를 최소화하고 머릿속에 넣어둔 요약된 주제로 답을 고릅니다.

■ 오답해설

- ① (다)는 이견을 포용하는 삶의 중요성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 ② (다)는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 ③ (다)의 ‘푸르른 산 빛’은 자연으로부터의 위로가 아닌 외면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⑤ (가)의 화자에게 황혼기는 가볍고 신비로우며 자연스러운 시기로, 결코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한편 (다)의 글쓴이는 ‘용연사’를 통해 주어진 상황에 단순히 순응하는 삶(작은 집을 그저 작다고 여기는 것)이 아닌, 개인의 마음가짐에 따라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22. 표현상의 특징은 기계적으로!

■ 정답해설

- ④ (가)는 ‘~고, ~는’를 통해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합니다. (나)는 ‘달빛’이라는 시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

1연

유자남에 유자가 열리고 굴나무에는 굴이 열리는
이 지순한 길은 바다로 기울었다.

4연

유자남에 유자가 열리고, 굴나무에는 굴이 열리는
이 당연한 길은 바다로 기울고, 가쁜 나의 신발.

(나)

2연

그는 달빛 그림자를 밟고 뛰어놀았으며
밝은 달빛 머리에 받아 글을 읽고
자라서는, 먼 장터에서
달빛과 더불어 집으로 돌아왔다.

● 지문독해 FRAME

잔상

다른 문제들을 통해 지문을 읽고 풀며 잔상을 남겨둡시다.

● 선지선택 FRAME

유사한 통사 구조

유사한 통사 구조란 문장의 문법적 틀이나 어순 패턴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반복

반복은 2번 이상이면 반복이지만, 평가원 기출에서는 대부분 3회 이상 제시될 때를 반복이라고 해왔습니다.

애매한 지점이 아닌 확실한 지점에서 정답 근거를 찾아봅시다.

시어/시구/시행

·시어: 시에서 사용되는 개별 단어나 어휘를 의미합니다.

·시구: 시에서 의미상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어구나 구절을 뜻합니다.

·시행: 시에서 한 줄을 이루는 완결된 문장이나 구문을 가리킵니다.